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39
----------	-----

발의년월일 : 2008년 5월 20일

발 의 자 : 김인식의원 외 18인

1. 주 문

- 중앙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의료비 및 요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 나.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을 불과 40여일을 앞에 둔 현시점에서 요양보험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전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3.1%인 16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 사이 노인의료비는 1995년 7,281억원(전체 의료비의 12.2%)이었으나 매년 30%에 가까운 증가추이를 보여 2005년에는 7조 3,159억원(26.0%)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의료비 및 요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을 불과 40여일을 앞 둔 현시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요양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약 4만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에 촉박한 일정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교육기관을 무분별하게 난립시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높은 이직율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 비정규 시급요양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어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그로인해 잦은 이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제로 야기된 교육기관의 부분별한 난립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요양보호사 실습제도의 비현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을 장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더 나아가 무자격강사로 인한 부실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수강료 표준화 적정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촉구합니다.

넷째, 중앙정부는 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과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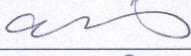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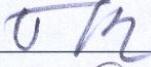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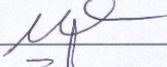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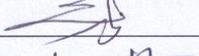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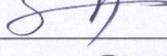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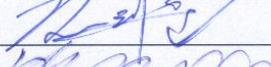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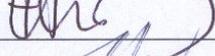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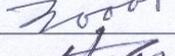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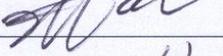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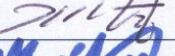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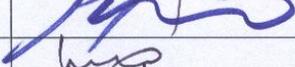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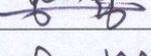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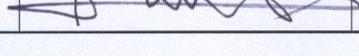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8. 5. 2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찬성의원 서명

의원명	서명	비고
김인식		
이정민		
이성훈		
양승진		
이성태		
오영세		
박희진		
김희훈		
박수범		
권형채		
진영관		
전병배		
김학우		
조신호		
곽영우		
최관우		
김재경		
홍재홍		
정준홍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총리실장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6. 국회의장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8 한나라당 대표
9. 통합민주당 대표
- 10 자유선진당 대표